

휴대폰 다단계 판매 '합법-부작용'

고가 단말 · 요금제 가입 유도 피해 논란... SKT · KT 철수... 1위 LG유플러스 '지속여부' 주목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한 관심이 새삼 고조되고 있다. 업계 인파에서는 다단계 판매를 두고 합법적 마케팅 수단이다 라는 주장과 '요금폭탄 등 부작용이 많으니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인터넷 판촉과 오프라인 좌담회 등으로 이뤄진다. 주로 지인간 면대면 영업으로 시작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휴대폰 구매에 서툰 장년·노년층이 주타겟이 되기도 한다.

현재 SK텔레콤과 KT가 다단계 영업을 접기로 한 가운데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은 18일 오후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SK텔레콤과 KT가 다단계 판매를 접은 이유는 두 회사 입장에서 논란만 크고 실속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SK텔레콤과 KT의 다단계 판매 가입자 수를 합해도 11만7800명 수준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업계 1위로서 가입자만 43만명이 넘어 상황이 다르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권 부회장은 "이미지가 안 좋긴 해도 다단계 영업(판매) 자체는 합법적 마케팅 수단이다. 부작용이 있다면 개선하겠지만 논란에 떠밀려 중단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한 바 있다.

다단계 판매가 합법화된 것은 1995년으로 KT가 먼저 시작했었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류공조개선편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활성화된다.

단통법이 단말기 구입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보조금을 택하지 않



네트워크 카메라 20주년 변천사 전시. 엑시스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가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네트워크 영상감시분야의 대표적 컨퍼런스인 '엑시스 솔루션 컨퍼런스 2016'을 개최하면서 네트워크 카메라가 발명된 지 2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 네트워크 카메라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으면 월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동통신사는 수익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이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은 별도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다단계 판매를 강화했다.

올해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국회 입법조사처 통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유통망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수는 2016년 6월말 기준 55만2800명이다.

이동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43만5000명으로 전체 가입자 비율의 3.7%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KT는

6만16200명(0.4%)으로 2위, SK텔레콤은 5만1600명(0.19%)으로 3위였다.

다단계 판매는 소비자보호 자침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상품가격이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거나,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하면 안된다. 공급상품 가격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제재를 받는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과도한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23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불법행위 처벌을 두고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 시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성준 방통위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에) 제재를 가하고, 다단계 자침을 만들었지만 이후에도 여러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최근 다단계 판매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강화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음식물 쓰레기서 도시가스 생산

화학연, 혼합가스를 분리·정제하는 분리막 기술 개발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배출되는 바이오가스에서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함유된 메탄 및 이산화탄소의 혼합가스를 고순도로 분리, 정제하는 분리막 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분리막 기술은 막 소재를 이용해 여러 기체가 혼합된 물질에서 원하는 기체만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기술이다.

바이오 가스에 60~70% 가량 함유된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를 회수해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구팀은 바이오 가스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고순도로 분리, 회수할 수 있는 4단 분리막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바이오가스 분리막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 및 프랑스, 일본 등에서 사용하는 2~3단계 공정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의 메탄을 회수할 수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로부터 최대 순도 98%의 메탄을 생산할 수 있어 도시가스로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이산화탄소도 95% 이상 회수가 가능해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연구팀은 바이오가스로부터 신재생 천연가스를 정제해 수입을 대체할 경우 연 1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도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 환경신기술 인증을 획득하고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파일럿 플랜트에 설치, 시범 운영하며 검증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환경부 Non-CO2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화학연이 개발을 주관하고 (주)한국종합기술, 에어레인(주), 청해ENN(주), (주)노팩스 등이 참여했다. /뉴스

개인사업자 대출 289조, 전년비 36조 ↑

지난 6월 기준 "제2금융권 급증... 리스크 부각시 부실화 우려"

최근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 미 금리인상 등의 리스크 부각시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송재만 수석연구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시장의 트렌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12년(572만명)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9만명 감소한 556만명을 기록했다.

반면 국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약 289조원으로 전년 대비 36조원 증가했다.

이 중 은행권의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중 신규대출 비중은 2012년 34.5%에서 지난해 43.3%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더욱이 최근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면서 리스크 증가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각각 23%, 5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은행의 증가율은 12%였다.

보고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는

기업구조조정, 베이비부머 은퇴, 청년 실업 증가 등에 기인하며, 경기부진과 미국 금리인상 등의 리스크 부각시 부실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증가와 함께 청년층의 개인사업자 진입 증가로 필요자금 증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송 연구원은 "저성장 및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개인사업자는 수익 악화와 가처분소득 감소로 대출 상환 여력이 더욱 축소될 전망"이라며 "미국 금리인상 시에도 국내 금리의 상승 압력이 커져 개인사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상존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 혁신적 신용평가 기법의 도입을 통해 리스크 관리 및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어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은 기존 신용평가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었던 개인사업자 고객군을 대상으로 해외은행처럼 혁신적 신용평가기법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

박찬대 "정부, 보금자리론 수요 예측 실패"

"지난해 6조 예상 · 248% 기록... 올해 6조 예상 · 8월까지 156% 판매"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자격 강화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금자리론의 공급-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원을 예상했으나, 연간 판매 금액은 14조7496억원으로 8조7496억원을 초과하며 목표 대비 248%를 기록했다. 올해도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

원 예상한 반면 이미 8월까지 9조 4192억원이 판매돼 목표 대비 156%를 달성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박 의원은 "작년에 이미 예측 실패를 했음에도 올해 계획 수립에도 이런 점이 반영이 안됐다"며 "이로 인해 11~12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고 한 고객들이 강화된 자격요건으로 주택 구매를 뒤로 미루는 상황에 놓

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다주택자도 상당했다. 지난해 2주택자의 보금자리론 대출금액은 2조2739억원으로 총 보금자리론 판매금액 14조3797억원의 15%에 달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기준이 있으나, 1주택자에 한해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걸고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8월 기준 2015년도 대출건수

중 25%만이 기존주택을 처분했으며, 올해 대출 건수 중에는 단 6%만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년 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 구매는 투기 구매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박 의원은 "반복된 수요 예측실패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며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론이 일부 다주택자와 높은 주택가격 한도로 인해 투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규모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